

도내 정당들 조직개편 분주... 이목 쏠려

더민주, 개편 분주·단합대회 예정... 새누리, 사무처장 인선 과제만 남겨... 국민의당, '새판짜기' 바쁜 행보

도내 각 정당들이 조직 개편에 나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것과 관련, 도당을 새롭게 개편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김춘진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 지지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언론에서 지역위원장과의 화합과 결속이 주요 과제로 떠올라 당내 갈등 문제 해소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오는 6~7일 부안 대령리조트에서 주요 당원 단합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경우는 공석인 사무처장 인선 과제만을 남겨둬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다.

일각에서는 대대적인 조직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곧 있을 새 사무처장 중심으로 한 당원 교육과 기존 조직 점검에 주력, 도당의 조직 변화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가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경우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당 발전에 헌신한 인사들을 중용하기 위해 원로 자문회의를 구성하기도 했다"면서 "이정준 위원장을 중심으로 대선에 대비해 전방위적인 전략 구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지난 4.13 총선 승리를 '낮은 자세'로 이어가면서 현안 대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나 화났어” 4일 전북혁신도시 내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태홍 의원의 아들 의원들의 새누리당 국정감사 불참 지적에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일단, 정진숙 전 도의원을 첫 여성 사무처장으로 결정할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당원 배가 운동' 등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시스템 구성조차 되지 않은 조직력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공석으로 남아 있는 홍보국장 임명을 서두르는 등 '새판짜기'에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당 상근 당직 임명 등 중간간 도당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정치 관측들은 "각 정당들이 총선

을 치르며 구축된 조직 기틀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틀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각 도당은 이번엔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조직의 생존을 놓고 씨름해야 할 처지가 됐다. 각 도당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지 관심이 다"고 말했다.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의 기록'

이춘석, 법사위 쟁점들 책 3권으로 펴내

법사위 터줏대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 갑)이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의 기록을 책 3권으로 펴냈다. 이 의원은 정치적 쟁점이 제기되는 법사위에서 겪었던 일들을 ▲검찰 미제사건 ▲숫자로 본 법원이야기 ▲감사원 감사원 사정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풀었다.

먼저 '검찰 미제사건' 편에서는 각종 정치적 사건들 속에서 검찰 권력이 작동했던 과정을 생생하게 담았다. 감사와 스폰서,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 민간인 사찰, 국정원 댓글사건, 정운회, 성완중 사건 등 미제로 남은 사건 10가지를 르포 형식으로 풀었다. 쟁점으로 부각된 부분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축소된 부분, 당시 회의록과 증거자료들도 꼼꼼히 챙겨 향후 검찰개혁에서 구체적인 각론을 도출하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숫자로 본 대법원' 편은 숫자를 통해 법사위 혹은 법조계에서 오랜 논쟁이 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사법부의 과제로 남아있는 문제들을 정리했다. 예를 들어 재량적인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129+0'로 풀었다. 대법원장은 삼부요인의 수장으로서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데 현재 법률로 보장된 것만 129개에 달한다. '0'는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에 대한 평균 발부율이다. 무분별한 통신관련 자료 수집에 법원의 통제 기능이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법사위에서 논의했던 내용과 진단, 제언을 함께 수록했다.

'감사원 감사원 사정'에서는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기관임에도 KBS 감사, 국가인권위 감사, 4대강 감사, 세월호 감사 등을 거치며 청와대 사정기관으로 몰락해 가는 과정을 사정 형식으로 담았다.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의 주요기관들이 정치화, 관료화된 점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3권의 책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초선의원들에게는 선배들의 실과와 성과들이 작은 지표가, 또한 귀감기관에게는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업했다"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자원3사, 2008년부터 해외자원개발에 30조 투자

조배숙 "이 중 27.6조는 빛... 회수 4.8조·손실 6.3조... 이자만 3.8조"

지난 2008년 이후 자원3사(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가 쏟아부은 해외자원개발사업비가 무려 274억불, 30조 3,560억 원(※1달러=1,104원으로 산정)에 이르고, 이 중 91%인 27조 6,441억 원을 빛을 내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이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3사 개발사업은 지난 2008년 MB정부 출범시기인 2008년부터 2015년말까지 70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총 30조 3,560억 원을 투자했다. 이 중 회수는 15.8%인 4조 8천억에 그치고,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이 6,365억,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누적 손실액이 5조 6,251억 등 약 6조 2,500억 가량이 손실/손상액이 발생했다.

특히, 투자금 30조 3,560억 중 가스공사 8조 7천억, 석유공사 14조 2천억, 광물자원공사 4조 6천억 등 총 투자금액의 91%인 27조 6,441억 원을 빛을 내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으로 자원3사가 만기시까지 지불해야 할 이자만 가스공사 1조 8,999억(타사사업은 추정 불가로 제외), 석유공사 1조 4,303억(1달러=1,150원 산정), 광물자원공사 4,698억 등 총 3조 7,994억이다.

자원3사의 부채비율은 역시 폭등했다.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08년 73%에서 2016년 6월말 현재 516%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광물자원공사도 2008년 85.4%에서 2016년 6월말 현재 10,454%까지 폭등했다. 조배숙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은 MB정권의 성과지상주의와 이에 부응한 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만든 합작품"이라 강조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바리오화순, 폐광지역 활성화를"

정운천, "4년 동안 국민 혈세 50억 2400만원 낭비"

국회 정운천 국회의원(새누리당, 전주)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출자한 (주)바리오화순(전남 화순)이 회사 설립 후 4년째 아이템 선정이라는 명분하에 실제 아무런 상태에서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바리오화순은 2012년 회사 설립 때 선정된 사업아이템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화한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아이템을 찾고 있다"며 "사업아이템을 찾기 위해 8년의 연구용역을 한 바리오화순은 전남 화순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회사가 아닌, 사업아이템을 전문으로 찾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회사실정이 이러한데도 대표이사를 포함 총 7명에게 들어가는 급여만 2016년 기준으로 2억 7,200만에 달하고, 대표이사의 급여는 9,500만원에 달하는 고액연봉이다. 게다가 2013년에는 1억 4,000만원 성과급 잔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화순군과 강원랜드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4년 넘게 지연된 사업아이템 발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폐광지역활성화란 설립 취지에 맞게 회사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주)바리오화순은 폐광지역인 전남 화순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의 제2단계 폐광지역 투자계획(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한국광해관리공단, 화순군, 강원랜드가 출자하여 설립된 기업이다.

신광영 기자

김관영 "에너지경제연, 수력원자력에 발목 잡혀"

원자력발전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군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출연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통계를 공개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현안문제 해결에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원자력'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출연금 규모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연도 말 기간 전체 결산영역의 2~3배에 달할 만큼 규모가 크며, 이는 곧바로 성과급 규모를 좌지우지해 직원들이 연구에 계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이트인 '알리오'에 공개한 출연금의 출연 목적도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하여금 '원전정책 연구'를 목적한다고 표시되어 있다.

김 의원은 "특정 에너지 산업군의 편향된 연구가 국가 에너지정책의 왜곡과 답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런 우려가 우려로 그칠 수 있도록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연구 성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제57회

한국민속 예술축제

The 57th Korean Folk Arts Festival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전북도, 2016년 전주한민속축제추진위원회

제23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The 23rd National Youth Folk Arts Festival

주관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 KoTPA

2016.10.13. 목
— 16. 일

전라북도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문의 063-280-1652~3 www.kfaf.or.kr